

# 영암, 도시재생 '우리동네 살리기' 공모 선정

## 교동리 '정다운 골목따라 살기좋은 마을' 선정 총 사업비 95억 들여 내년부터 4년간 추진

영암군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2년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공모에 '정(井)다운 골목따라 살기좋은 교동(校洞)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해 교동리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은 20년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168억원), 21년 삼호읍 도시재생 인적사업(76억원)과 확산면 도시재생 예비사업(2억원)에 이은 네 번째 도시재생 공모 선정사업으로, 마중물 사업비 75억원(국비 45, 지방비 30)과 부처·지자체 연계사업

등 총 사업비 95억원을 들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한다.

사업대상지인 영암읍 교동리는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향교를 품고 있는 과거 영암교육의 중심지역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주변으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며 생긴 지역민이주 현상으로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된 전형적인 구도심의 모습을 보이는 곳으로 도시재생이 절실한 지역이다.

'정(井)다운 골목따라 살기좋은 교

동(校洞)마을'은 교동리의 100년 우물(井)을 중심으로 펼쳐진 마을과 구불구불한 정겨운 골목길을 되살려 생활여건과 정주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공간재생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오래된 주택의 집수리, 좁은 골목길 정비, 보행자 우선의 안전한 보행로 정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지자체 사업인 영암초 등하굣길 안전거리로 개설공사와 연계진행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마을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공동체 재생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해 빈집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교동사랑방, 100년 된 우물을 활용한 족욕 센터, 영암읍에 가장 오

래된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한 교동점방과 마을공원 3개소를 조성하여 휴게공간, 마을주차장, 마을전시관, 손님맞이 쉼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상회복 안심편한동네사업으로 스마트보안등, CCTV, 클린하우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스마트한 안전, 깨끗하고 정다운 교동마을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우승회 영암군수는 "도시재생을 통해 역사와 전통의 교동리를 새로운 가치로 되살려낼 것이라 기대된다. 인구유출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표적인 구도심지역인 교동리가 사업을 통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형두 기자

# 광양, 수도사업자 운영실태 점검 '우수상'

광양시는 2022년 수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일반수도사업자의 운영·관리실태 점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는 2021년 '최우수상' 수상 후 연속 수상한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일반수도사업자 운영실태 점검은 전국 168개 지자체 수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2년 4~11월 점검을 진행했다.

평가 분야·항목은 ▲상수도요금 현실화 노력,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 일반 분야 ▲정수시설 운영관리, 정수장·상수관망 개선실적 등 운영·관리 분야 ▲정부정책 이행 노력 등 정책분야 등 3개 분야 27개 항목이었다.

학계·상하수도협회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실태점검단'을 통한 기본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한 뒤, 기본평가와 현장평가에서 상위 20%의 수도사업자에 대해 '종합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시행했다.

시는 4~5월에 시행한 기본평가와 7월에 시행한 현장평가를 통해 상위 20% 순위에 포함됐고, 11월 종합평가에서 수돗물 음용률 향상과 정부 정책 이행 노력도 부문을 평가한 결과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광양시는 다변화하는 원수에 대비한 정수처리 능력,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노력 부분을 인정받았다.

김복덕 물관리센터소장은 "2년 연속 상을 수상하며 광양시 수도사업 운영 분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 행안부 지방불가 안정관리 평가 무안 '최우수 기관' 선정 영예

무안군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 지방불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추진실적, 우수시책 등 지방불가 안정관리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 무안군은 기관장 관심도, 물가안정관리 추진체계 구축 노력, 물가동향 현장 모니터링,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노력으로 그립별 상위 10%인 '가' 등급을 부여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는 영예를 얻었다.

특히 군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장기적인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하수도 요금을 2개월간 10% 감면해 총 25,015세대에 5900만원의 요금을 감면했으며,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통해 요금 인상 시기를 2년 유예해 3,946세대에 부과될 하수도 요금 중 연간 6억 5900만원을 감면해 하수도 총 사용량의 20% 감면 효과를 나타내는 등 고물가 상황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또한 무안군은 착한가격업소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했으며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간담회, 민간협력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그 밖에도 ▲쓰레기종량제 봉투요금 동결 ▲지역상품권 확대발행을 통한 지역상권 안정화 ▲100원버스 운행 ▲행락철바가지요금 등 지방불가 안정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합평=김동희 기자

# 신안 퍼플섬 '대한민국브랜드 대상' 최우수상 수상

##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 수상 이은 쾌거



신안군은 최근 서울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에서 열린 '제24회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퍼플섬'이 국무총리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1월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문화관광분야 대

통령상 수상에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브랜드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다.

대한민국브랜드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고 산업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정부가 수여하는 국내 유일의 브랜드관련 포상제이다.

다.

포상제도는 혁신적인 브랜드경영체제 도입을 통한 우수한 브랜드경영 성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일반 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1차 서류 심사, 2차 발표 심사, 3차 국민 심사를 통해 일반 기업체 8개소, 지방자치단체 2개소가 선정됐다.

신안군은 컬러, 그린, 아트마케팅을 활용한 '퍼플섬'으로 ㈜녹십자, 대상웰라이프㈜, 비씨카드㈜ 등의 브랜드와 경쟁해 국민들이 인정하는 대표 브랜드로 우뚝섰다.

특히 이번 수상으로 '퍼플섬'은 연간 40만명이 찾는 세계 속의 최고의 관광지로서 발돋움하고, 컬러마케팅을 활용한 경영전략, 브랜드 파워·운영노하우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

/신안=박정태 기자

# "담양산타축제, 놀러오세요"

## 23~25일 메타프로방스·원도심서 개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담양 산타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린다.

18일 담양군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메타프로방스와 원도심 일원에서 '산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주제로 담양산타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3년 만에 열리는 제4회 담양산타축제는 담양의 특색을 담은 크리스마스 경관 조명과 포토존,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 마켓을 운영해 담양에서의 선물 같은 하루를 선사한다.

관공명소인 메타세쿼이아길을 선물상자 조명과 리본으로 장식하고 메타프로방스 곳곳에 야간경관 조명과 포토존을 설치, 이국적인 분위기를 살려 방문객들이 야간까지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중앙공원에는 성탄트리와 조명을 설치하고 중앙로에는 포인세티아꽃을 곳곳에 배치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담았다.

고적대 페레이드와 캐럴, 재즈, 마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도 준비됐고 원도심 중앙공원에서 이어지는 버스킹공연과 담빛예술창고 산



타음악회, 담양 LP음악천주소의 캐럴 페스티벌을 통해 연말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 메인 이벤트인 '루돌프 빨간코를 찾아라!'는 경품추첨을 통해 매일 금 1돈과 다양한 담양 특산품을 선물하고, 영수증 이벤트, 스탬프투어 이벤트, 크리스마스 프리마켓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소비가 순환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병노 군수는 "산타축제는 겨울 관광산업을 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3년 만에 열리는 담양산타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담양=조승태 기자

# 목포 평화광장 가랜드전구 확대 상가 앞 인도 650m 구간 추가 설치

목포시가 평화광장에 가랜드전구를 확대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2022 목포항구축제'에서 설치했던 가랜드 LED전구를 지난달 평화광장 상가 앞 바닷가 인도 300m 구간에 설치했다.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호평을 얻은 가운데 상인과 시민의 추가 설치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시는 지난 16일 남은 인도 650m 구간에도 가랜드 전구를 설치했다.

평화광장 상가 앞 전구간에 LED 가랜드전구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낭만적인 겨울밤 분위기가 한층 배가될 뿐만 아니라 평화광장 상권도 활기가 증대될 전망이다. 평화광장은 목포해상W쇼, 춤추는 바다분수 등 목포시를 대표하는 관광랜드마크인데 오는 24일과 31일 유명 가수 초청 특별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평화광장의 밤이 대형 트리와 함께 LED 가랜드전구 조명으로 장식돼 더욱 낭만적인 공간으로 변모하게 됐다"고 말했다.

/목포=김근호 기자

# 순천시 왕조1동, 사춘기 재간둥이들 음치밴드 발표회

## '신나는 드림·기타 악기 놀이' 학생·학부모 호응

순천시 왕조1동은 학생, 학부모,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춘기 재간둥이들의 음치밴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음치밴드는 감수성이 예민한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건강한 사춘기를 보낼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매년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을 우선으로 선정해 드럼, 기타 등 악기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해 학생,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15일 음치밴드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그동안 익힌 재능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아직

은 서툰 솜씨지만 한명 한명 연주를 멋지게 선보이며 관람객들로부터 감동 어린 박수갈채를 받았다. 아이들은 색다른 경험을 통해 숨은 끼를 발산하며 자존감이 향상되는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김미자 왕조1동장은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며 아이들이 격려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긍정 에너지로 작용해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해 나갈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본 사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 광양, 수소산업 '온택트 투자설명회' 성료

## 투자환경, 전남도·광양시 기업 지원제도 등 소개

광양시는 지난 15일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4층 대강당실에서 전라남도도와 함께 '온택트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택트 투자설명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추진하는 비대면 투자설명회로, 전라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옴뎀남튜브'에서 약 1시간 동안 생중계됐다.

이번 온택트 투자설명회에는 이귀동 전라남도 투자유치과장, 박종태 광양시 투자유치과과장, 신오희 광양시 에너지관리팀장, 노경숙 광양시 4차산업혁명위원, 유성철 (주)피앤오 케미칼 기획경영실장이 패널로 참석해, 광양시 수소산업 투자환경, 전라남도와 광양시의 기업 지원제도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에어 프로덕츠, H2KOREA 등 광양시 수소산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협회에서 유튜브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시는 지난해 '2050 수소경제 중심도시 광양' 비전을 선포하고 수소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 추진,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지역사회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수소의 생산·저장·운반·활용에 이르는 수소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최근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400억 원 규모의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수소도시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기, 광양시는 수소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갑동시대 따뜻한 광양,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먼저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 영광, 극심한 가뭄 극복

## 영광실내수영장 격일제 운영

영광군은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다가오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뭄해제 시까지 영광실내수영장을 격일제(화,목,토,일)로 운영하기로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우리 군 상수도 수원지와 농업용수 공급 등이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영광실내수영장을 격일제 운영하여 사전에 물 절약을 실천하게 위함이다.

또한, 영광군은 가뭄 극복을 위해 지난 11월 21일부터 스포티움 내 수영장 샤워실 및 화장실에 사용하는 상수도를 종합운동장 관수용 지하수로 대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절수형변기·샤워기 설치, 물 절약 홍보 등 가뭄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서종민 기자

# 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 공공자금 운용혁신으로 세외수입 증대... 5억 확보

진도군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재정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재정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행사이다. 전국 지자체의 세출절감, 세입증대 등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고 있다.

169개의 지자체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총 3년의 평가를 치른 후 최종 선정된 10개 기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의 수상을 위한 최종발표회를 가졌다.

진도군은 세입증대 분야에서 '잡

자는 공공자금 깨우기! 우리는 금융 전문가!'란 주제로 최종 분선에 진출, 공공자금 운용혁신으로 이차수입을 높이고 세외수입 증대를 이끈 모범 사례로 높은 점수를 받아 대통령상과 시상금 5억원을 확보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15일 "이번 수상이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공공자금 관리 모범대응 사례로 인정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열린다.

/진도=박재영 기자

# 화순, 수돗물 절약하면 요금 감면 받는다

## 전년 동기 대비 40% 절감 가구... 최대 13% 할인

화순군은 올해 12월 사용량부터 한시적으로 수돗물을 전년 동기 대비 40%까지 절감한 가구에 최고 13%까지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군은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에 심각성을 일리고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물 절약 홍보 캠페인 영상 및 홍보물 배포, 현수막 게시를 했으며, 절수 운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현재 소비량을 감안하면

식수난과 농업 및 공업용수 부족, 농작물 피해 등 군민의 불편과 고통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절수운동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해 물 절약 수용기에 대하여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12월 사용량부터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수돗물을 10% 절감한 경우 절감량의 100%를 감면하고, 10% 초과에서 40% 이하 절감량에 대해서는 절감량의 10%의 요금을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

/화순=주용현 기자